

Session 08 첫째 계명 : 마지막 시대의 사역 패러다임 (First Commandment : End-of-the-Age Ministry Paradigm)

I.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부의 패러다임

1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2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아버지)과 같으니 3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 5 그들이 돌아 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 8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9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마 22:1-9,37)

- A. 예수님께서서는 혼인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첫째 계명으로 초대하셨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부의 패러다임(시각 또는 관점)을 계시하신다. 아버지의 영원의 계획은 자신의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지게 되는 관계는 혼인이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뿐인 특권에 초대받은 것이다.

7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 (계 19:7-9)

- B. 창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 자신과 함께 할 자녀들을 세우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으로 다스릴 영원한 동반자인 신부를 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합당하신 아들을 위해 예비된 신부를 세우고 계신다. 우리가 받게 될 의복은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 C.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신랑이라 칭하셨으며, 사도들을 신랑의 친구들로(마 9:15), 그분의 나라를 혼인 잔치로(마 22:2),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칭하셨다(계 21:9).
- D.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으로 스가랴 9:9절의 유명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신 것은, 마태복음 21-25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형성해준다.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왕으로서 백마를 타고 오실 것이다(계 19:16).

II.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 : 혼인 잔치에 대한 초대로써의 복음 전도

3 (왕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4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마 22:3-4)

- A. 아버지께서는 종 또는 메신저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부르셨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불타는 갈망을 계시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길 원하시는 깊은 관계에 대한 열망을 보이신다. 이는 인류를 향한 목적을 밝혀주며, 역사의 계획, 그리고 사역의 가장 최고 핵심을 밝혀준다.
- B. 신부의 관점은 복음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며, 목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상담하는 방식을 바꾸며, 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을 바꾸고, 선두주자들이 예언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며,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며, 구원과 거룩, 심판에 대해 가르치는 방식에도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두려운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되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옮겨진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우고 강건케 하심으로 하나님과 깊고 영원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구원(고전 1:9)도 필요하다.

III.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 : 수동성과 적대감

5 그들이 돌아 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7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마 22:5-7)

- A. **예수님에 대한 수동적 저항** :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갈망하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는 감사함이 없는 심각한 범죄이다. 사람들은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창조와 성육신에는 실용적인 것이라곤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위해 자신의 일을 행하신 것이었다. 밭과 사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며,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다. 어떤 축복이나 사역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
- B. **예수님에 대한 적극적 저항** :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적대함(악의적으로 대하고 죽임)
- C. **하나님의 적극적인 반응** : 왕은 자신의 메신저들을 죽인 자들을 진멸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 자신의 군대를 보내셔서 살인자들을 죽이시고 도시를 불태워 버리신다.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도성을 불태워버리실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혼인 잔치를 예비하셨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죽였기 때문이다(계 16:17-21; 19:2,11-21). 로마 군대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함으로 이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됐다.
- D. 아버지의 사랑의 강렬함은,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그분의 진노의 강렬함과 동일하다.

2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계 19:2)

- E. 아버지의 열정과 진노 사이에는 어떤 모순도 없다. 하나님의 진노는 혼인 잔치를 준비하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그분의 열심으로부터 나온다(2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랑이심을 이해할 때에만 심판자이신 그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분은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과 자신의 신부를 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심판에 있어 아버지와 동역하신다.

F. 아버지의 진노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를 향한 그분의 열정의 표현이다(시 2:5-9).

5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 내(아버지)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 8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예수님)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9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 2:5-9)

G. 60년 후 밧모 섬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마 22:7절을 더 자세히 발전시켜 계시록의 심판들을 통해 요한에게 설명하셨다. 계시록이 말하는 주제는 자신의 혼인 잔치를 위해 예비된 신부와, 첫째 계명이 전 세계를 가득 채우는 것과, 악이 이 땅에서 완전히 제해지는 것이다.

H.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부분을 부끄러워한 나머지 이 부분을 숨겨버리거나,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오류로 규정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비관적인 사람” 혹은 “지옥 불을 전하는” 설교자라는 참소를 들을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불같은 사랑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셨다. 우리는 신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만 심판에 대해 올바르게 설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맹렬한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I. 우리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적절하게 평가해내지 못한다. 계시록에서 도시를 불태우는 아버지는 신부의 메시지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권세도 없으며,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말씀을 우리의 문화 안에서 이해되도록 바꿀 권세 또한 없다.

J.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길 기도했다. 심판에 대해 전하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격렬하심에 대한 계시에 뿌리를 박고 있어야 한다.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3:17-19)

IV. 하나님의 영광 : 모든 이들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한 갈망

8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9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10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마 22:8-10)

A. 청함을 받았던 자들은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았기에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구원에 합당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만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함으로 반응함을

말한다.

- B. 영원에서 쓰이게 될 주요 “화폐”는 우리가 이 시대에서 드리는 자원하는 사랑이다. 신부의 패러다임을 통해 바라보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과격하게 헌신(포기)하도록 하며, “보험 성격으로 믿는 기독교”에 관심이 멀어지도록 할 것이다.
- C. 하나님의 마음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 대한 그분의 갈망에서 볼 수 있다(마 21:31). 예수님께서서는 “부정한” 사람들을 원하신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만큼 멀리 떠나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분은 그들을 원하신다.

31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 21:31)

- D. 하나님께서 대로와 골목길로 자신의 메신저들을 보내시는 열심에서 우리는 그분의 불같은 열정을 볼 수 있다. 그분은 자신의 종들이 이 위대한 드라마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대로와 골목길로 나가 이방인들을 데려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 E. 주께서는 악인의 죽음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며,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23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겔 18:23)

9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 3:9)

- F. 혼인식장은 마지막 시대의 대 추수로 인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계 7:9)

V. 겸손과 사랑으로 반응해야 할 필요성

11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 청함(초청)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선택받기 위해 반응함)는 적으니라 (마 22:11-14)

- A. 이 위대한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혼인 예복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에게 전가되고 부여된 의를 말한다. 혼인 예복은 각 성도들에게 각자의 행함(행위와 순종)에 따라 주어지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선물로 받는 의의 옷(고후 5:21; 사 61:10)과는 다른 것이다.

7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계 19:7-9)

1. 법적 지위 : 예수님의 의의 선물은 우리가 거듭날 때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전가(impute)된다.
 2. 삶의 상태 : 의의 성품은 성령님에 의해 점진적으로 부여진다.
- B. 이 사람은 구원 잔치에 자신의 의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종교의 옷** : 이는 “명목상의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 불교 등을 말하며, 거듭나는 것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종교적인 교만을 입고 자신의 공로를 믿고 있으며, 이것이 구원에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타협의 옷** :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편승해서 지속적인 타협을 하는 사람들로서, 순종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 없음에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한다.
- C.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없이 많은 실패들에 대해 놀라운 자비하심을 보이신다.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진실한 회개로 우리의 실패에 대해 싸울 것에 대해 긴 세월 동안 거절하는 것이다. 성경적인 용어에 친숙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미성숙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충성되지 않음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배역함과 미성숙을 구분해야 한다. 우리가 배역함을 기반으로 한 미성숙을 저지를 때는,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분께 나아가기보다 그분으로부터 달아난다.
- D. **청함(초청)을 받은 자는 많되(다수)** : (사랑으로 믿음을 보이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원칙은 이 비유를 앞의 마 22:1-10절의 비유와 연결시켜준다. 주께서는 “많은” 이들을 청하시며, 이것은 “만나는 대로” 모든 이들을 청하심을 보여준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며 나온 사람들을 말한다(37절). “청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과 초청에 반응하지 않음으로 자신들의 특권을 잃어버렸다.
- E.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인간이 드리는 자원하는 사랑과 관계되어 성취된다(37절).